

학급문집 만들기 프로젝트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사진과 글을 통한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의 표현과 소통*

정현선**

<차 례>

- I. 연구의 출발
- II. 연구의 개요
- III. 학급문집 만들기 프로젝트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사진 찍기와 글쓰기 활동의 설계와 실행
- IV.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 V. 요약 및 결론

I. 연구의 출발

1. 학습자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매체 언어 교육의 계획과 실행

학습자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매체 언어 교육을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에 바탕을 둔 것이며(과제번호 : KRF-2008-332-B00398), 2009년 8월 국어교육학회 제42회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내용(발표문 제목 : 「사진과 글을 통한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의 표현과 소통」)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발표 원고에 대해 토론해주신 권순희(전주교대) 교수님과 심사 과정에서 논문의 보완에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 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hyeonseon@gin.ac.kr)

행할 수 있을까?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표현 수단으로서의 매체 언어와 소통 경로로서의 매체를 어떻게 보다 즐겁고 의미 있게 학습하도록 할 수 있을까? 매체 언어를 기존 국어과 교육과정의 하위 영역과 어떻게 연관하여 학습하게 할 수 있을까? 매체 언어 교육이 어린이들의 표현과 소통 능력을 기르고 심화하는 데 있어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논문의 문제의식은 매체 언어 교육에 관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매체 언어 교육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자에게 미칠 수 있는 의미 있는 영향과 학습의 성과를 표현과 소통 능력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본고는 이를 위해 학습자들이 자신이 속한 생활 세계에서 매체를 통해 의미 있는 표현과 소통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일련의 학습활동을 일종의 프로젝트 학습의 방식으로 계획하고, 이를 실제 학교 현장의 교실 수업에 적용하여 그 실행 과정과 결과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계획 실험(design experiments)’의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계획 실험’이란 Brown(1992)과 Collins(1992)에 의해 제기된 교육 연구 방법으로, 실제 교실 수업에 개입하여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적 목적을 지닌 연구이다. 비록 ‘실험’과 ‘계획’이라는 같은 단어를 순서만 바꾸어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실험계획법(design of experiments)’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연구방법으로서, ‘계획 기반 연구(Design-based research)’라고도 불린다(The Design-Based Research Collective).¹⁾

스코엔펠드(Schoenfeld)에 따르면, ‘계획 실험’ 연구는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다양한 학습 목표들을 복합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적합한 교육과정과 학습 환경, 이를 보조하는 테크놀로지의 사용을 ‘설계’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여 실행하되,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경험하고 얻게 되는 지식과 그 탐구 과정, 프로젝트의 결과물 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학습의 의미를 탐구한다(Schoenfeld, 2006 : 194). 이 연구는 의도된 학습 목표를 실현하기

1) 계획 기반 교육 연구의 전반적인 경향에 대해서는 미국교육학회(AERA)의 학술지인 『Educational Researcher』 제32집 제 1호에 수록된 특집 논문들을 참고할 수 있다.

위해 가장 적합한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애초에 설정된 학습 목표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연구 방법으로서, 특정 분야의 학습에 대한 이론 개발을 지향하며, 바로 이 점에서 교사의 수업 개선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실용적 목적의 실행 연구나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사례에 대한 탐구를 뜻하는 사례 연구와는 다소 구분된다. 계획 실험 연구의 목적은 특정한 형태의 학습을 “설계(engineering)”하고, 그러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을 갖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 형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데 있다. 계획 실험 연구는 다양한 유형과 수준의 복합적 요소들을 포함한 복잡한 상호작용의 체계인 “학습의 생태(a learning ecology)”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Cobb et al, 2003 : 9). 이 때문에 계획 실험 연구에서는 의미 있는 학습 목표 설정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올바르게 설정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본 연구에서 ‘사진과 글을 통한 표현과 소통’을 위한 프로젝트 학습에서 중요하게 여긴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학교 교육의 초기 단계에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매체 언어의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이미지(여기서는 사진)와 문자(글)의 결합을 통한 의미 표현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는 매체 텍스트가 학습자인 어린이들의 생활세계 속에서 의미 있게 소통될 수 있는 맥락과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매체 언어를 통한 의미 표현과 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은 매체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읽기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제기되는 매체 언어 교육의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이다.²⁾

- 2) 매체 언어 교육은 매체의 이데올로기적 의미나 사회문화적 가치에 대한 비판적 읽기를 목표로 한 ‘비판적 리터러시’를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왔다(Buckingham, 2003 / 2004). 그러나 이러한 비판적 읽기는 매체가 다루는 문제와 관련한 배경 지식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자신의 견해를 제 3자의 관점 및 그들과의 상호적인 관계에 놓인 ‘우리’의 관점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관점을 복수의 관점이라는 맥락에서 보다 일반화된 차원에서 조망할 수 있는 사회적 시각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Selman, 2003 : 21 ; 초영화, 2007 : 32 ; 권순희, 2009 : 9).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자는 아직 1인칭의 시점과 주관적 시각에서 자신의 관점을 주장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매체 텍스트의 사회적 의미를 비판적 읽어내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어쩌면 매체

이 연구에서는 어린이들이 사진과 글을 통해 개인적으로, 또한 학교생활의 사회적 측면에서 의미 있는 텍스트를 생산하도록 하되, 어린이들이 생산한 텍스트들이 누군가에게 전달되기 위해 특정한 형식을 지닌 매체의 내용으로서 포함될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텍스트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소통의 목적과 매체적 존재 방식을 이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일련의 학습 활동을 계획하여 실행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자들의 경우 사회적 관심보다는 주변 세계에 대한 관심이 더 큰 시기임을 고려하여,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사회적 매체가 아니라 학교에 이미 존재하는 교육 매체 가운데 하나인 학급문집을 매체로 선택하였다. 즉, 1년간의 학교생활과 학습의 결과를 담은 학급문집이라는 매체에 포함될 내용을 사진과 글을 통해 표현하여 생산하도록 프로젝트의 맥락을 설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생산하는 텍스트의 소통 목적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어린이들이 사진과 글을 통해 표현하는 활동이 국어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글쓰기 교육의 내용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체 언어 교육과 기존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적 연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매체 언어를 통한 표현과 소통이라는 차원에서 글쓰기의 개념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초등학교 2학년 쓰기 교과서에 제시된 활동 가운데 ‘새로 만난 친구에 대하여 알고 싶은 것을 쓰는 활동’,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그 그림을 글로 나타내는 활동’, ‘일을 사람을 생각하며 글을 쓰는 활동’들을 다소 수정하고 연계하여 일련의 표현 활동을 구성하였다.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1년간 같은 학급에서

언어 교육이 발달한 여러 나라에서도 초등보다는 중등 단계에서 비판적 읽기를 중심으로 한 매체 언어 교육이 이루어져온 것도 이러한 요인과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 필자는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에 적합한 매체 언어 교육은 매체 언어와 매체를 표현과 소통의 도구로서, 마치 언어를 학습하듯 배워서 그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게 된 것이다. 최근 매체 이용 연령이 점차 낮아지면서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이 매체를 의미 있고 현명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미디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학부모와 교사들 사이에서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한 사진 교육에 관해서는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유치원 편(2008),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진과 글쓰기 교육에 관해서는 정경렬(2009) 등의 출판물을 참고할 수 있다.

지난 친구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사진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친구들의 모습을 글로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학급문집이라는 매체의 소통 목적에 적합한 텍스트를 생산하도록 한 것이다.

2. 사진과 글을 통한 표현과 소통에 주목하는 이유

매체 언어 교육에 있어서도 특히 사진과 글을 통한 표현과 소통에 관심을 갖는 이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매체의 사용이 널리 확대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사진은 글과 더불어 일상적인 기록과 표현의 수단으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구당 디지털 카메라의 보유율은 65.9%에 달하며, 대부분 디지털 카메라 기능을 갖추고 있는 휴대전화 보유율은 98.9%에 달한다(방송위원회, 2007). 이러한 조사 결과는 일상생활에서 사진 찍기가 얼마나 쉬워졌는지를 보여 준다. 이를 입증하기라도 하듯, 사진은 인터넷에서 글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 수단으로 조사되었다. 사용자가 직접 제작하는 콘텐츠를 뜻하는 UCC(user created content)의 가장 주된 형태가 글(86.1%)에 이어 사진(76.6%)으로 나타난 것이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7). 실제로 인터넷 블로그에는 여행 중에 찍은 사진들을 포함한 여행기, 복잡한 요리 과정을 단계별로 사진에 담아 소개하는 글들이 넘쳐난다. 학교 현장에서도 다양한 교육 활동을 사진으로 담아 현장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학생들과의 추억을 사진으로 간직하고 나누려는 교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사진은 변화된 매체 환경에서 문자와 음성 언어와 함께 가장 보편적으로, 그리고 쉽게 사용되고 있는 ‘매체 언어’라 할 수 있다.³⁾

3) 본고에서는 ‘매체 언어’를 책,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의 언어’라는 좁은 개념으로 사용하여, 텍스트의 의미 작용에 관여하는 언어와 기호를 포함하는 비유적인 뜻으로 보고자 한다. ‘매체 언어’는 다양한 언어 양식(mode)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복합 양식(multimodality)’(정현선, 2007; 윤여탁 외, 2008; 최미숙 외, 2008a, 2008b) 혹은 ‘다중모드’(옥현진, 2008)의 특성을 지닌다.

사진도 글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말을 건네지만, 글과는 다른 방식으로 말한다. 사진은 보통 시선과 시점에 의해 만들어지는 인식의 경계표지라 할 수 있는 사각의 ‘틀(frame)’ 안에 과거의 한 순간에 존재했던 공간, 혹은 누군가의 독특한 태도나 몸짓, 표정 등을 담아낸다. 우리는 잘려나간 시간의 연속체인 사진 속에서 어떤 인물이나 사건의 개인적 혹은 사회적 역사를 발견하게 되고, 그러므로써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된다(진동선, 2008 : 145~6). 사진은 아주 작은 순간조차도 기억할 만한 것으로 만들어주고, 우리를 과거로 데려가 이야기를 들려주며, 사진 속 인물이나 장소,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사진은 글쓰기와 이야기에 있어 엄청난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의 단서가 되기도 한다(Horn, 2007 : 3).⁴⁾

사진 속에 나타나는 기술적 형상은 찍는 사람이 어느 만큼의 거리를 두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즉 어디에 ‘눈길을 두느냐’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진동선, 2008 : 54). 인간의 눈은 보는 순간 심리적으로 어딘가에 초점을 두게 되지만, 카메라의 눈은 그대로 두면 모든 것에 고루 초점을 두게 된다. 따라서 사진을 찍는 이가 인간의 ‘눈길’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기계적으로 어딘가에는 초점을 두고, 어딘가에는 초점을 두지 않는 기구 작동이 필요하다. 한편 사진은 현실 공간을 모두 담을 수 없고 한정된 이미지만을 담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직사각형의 틀(frame) 속에 담긴 형상을 통해 대상을 표현한다. 이러한 사진의 틀 속에 담기는 것은 누군가의 독특한 태도나 몸짓이다. 사진 속에 나타난 어떤 인물의 태도나 몸짓은 그 인물이 간직하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함축한다(진동선, 2008 : 145~6).

4) 이와 같은 사진의 특성에 주목하여 Horn(2007)에서는, 개인의 사진들을 분류하고 범주화해 보면서 개인의 기억을 떠올리고, 이 과정에서 사진의 의미를 해석하며 글쓰기로 연계하는 활동, 개인의 사진들을 모아 생애 지도를 만들어보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탐색하는 활동, 다른 사람의 사진을 보면서 역사 속 인물의 전기를 작성해 보는 활동, 사진이 보여주는 사회의 모습과 쟁점을 탐구하는 활동, 개인의 사진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창작하는 활동 등을 포함해,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기까지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진 연계 글쓰기 활동들을 제안하고 있다.

이처럼 독특한 사진의 말하기 방식은 글과 함께 관계 맺을 때 그 의미가 더욱 빛날 수 있다. 시간의 연속체 가운데 한 순간을 “인용”하듯 꺼내 오는 사진의 의미는 근본적으로 모호할 수밖에 없는데, 그 모호함을 보다 명료하게 하는 역할을 글이 담당하기 때문이다(Berger & Mohr, 2004/2007 : 87~90). 사진과 글의 관계에서 사진은 보는 이에게 해석을 요구하고, 글은 그것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이미지는 감정적 영향을 생산하는 데, 그리고 문자는 논리적 분석에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다(Arnheim, 1997). 본질적으로 일반화에 강하고 구체화에 약한 글은 반박하기 어려운 사진의 생생함 덕분에 구체적 신빙성을 얻게 된다(Berger & Mohr, 2004/2007 : 90). 이렇게 사진과 글은 하나의 텍스트 안에 함께 제시됨으로써 강력한 의미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II. 연구의 개요

1. 연구 설계

사실 매체란 개인과 개인 간의 의사소통을 넘어서 사회적 의사소통을 위해 존재하거나,⁵⁾ 사람들이 직접 만나 의사소통할 수 없는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의사소통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것이다.⁶⁾ 초등학교 저학

5) “오늘날 일반적인 의미에서 미디어(매체)란 고도의 전문화된 분업체계를 갖춘 조직으로서의 미디어를 말한다. 오늘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사회 내에서 개인, 집단, 사회적 주체 간에 이루어지는 다수의 소통 행위는 이와 같은 전문화된 조직으로서의 미디어를 경유해 이루어진다.”(윤석민, 2007 : 148)

6) “인간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이들과 소통을 해야 한다. 소통은 의미를 전달하고 해석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소통은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는 면대면 상황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글이나 그림과 같은 상징적 표상물을 통해서, 혹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처럼 전자 기술 매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 국어교육에서 매체에 관심을 갖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년 학습자들은 발달 단계의 특성상 사회 일반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 또한 영상 매체나 인터넷 홈페이지와 같은 매체를 제작하는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에게 아직까지 기술적인 측면에서나 매체 자체의 복잡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흔히 매체라고 하면 떠올리는 신문, 텔레비전과 같은 매체를 별도로 제작하기보다는 기존에 학교교육의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존재하고 있는 매체를 매체 언어 교육을 위해 새롭게 활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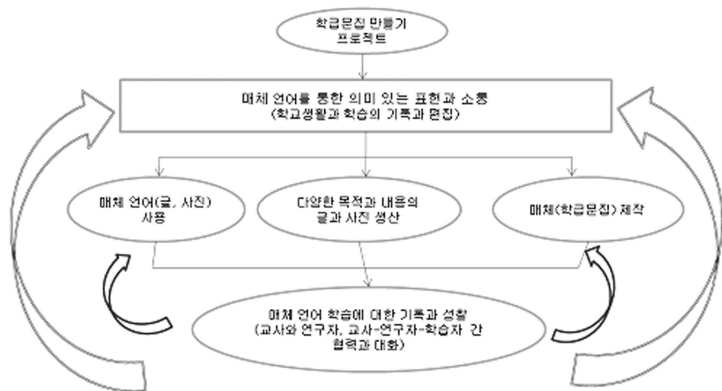
학급문집은 학교교육의 맥락에서 존재하는 교육 매체라 할 수 있는데, 보통 일 년 동안의 학교생활과 수업 결과물을 모으고, 학급 구성원들에 대한 소개와 추억이 될 만한 일화들을 모아 학년말에 제작한다. 학급문집은 학급 구성원들에 대한 소중한 기억을 간직하기 위한 학급 경영의 목적으로 제작되는데(우리교육, 2002), 매체 제작의 측면에서 보면 제작자와 수용자 모두가 학생들과 교사로서 제작자와 수용자가 분리되지 않는 독특한 매체이다. 그 안에는 보통 학급 구성원들의 이름을 소재로 한 삼행시, 국어 시간에 쓴 다양한 글, 운동회나 체험학습과 같은 학교 행사에 대한 소개와 사진, 학급 구성원들에 대한 소개 등이 포함된다. 매체의 기술적 측면에서 학급문집은 전통적인 방식의 인쇄매체로 제작될 수도 있고, 다양한 디지털 텍스트를 포함한 CD-ROM으로 제작될 수도 있다. 이처럼 학급문집은 단순히 여러 가지 글을 모아놓은 문집의 측면만을 지닌 것이 아니라, 학교생활에서 일어나는 삶과 학습의 다양한 장면 중 일부를 선택해 담아 추억으로 남기기 위해 만드는 특별한 교육적 매체이다.⁷⁾

이 연구에서 학급 문집 만들기는 그 자체로 목표라기보다는 사진과 글을 통한 표현과 소통의 목적과 맥락을 제공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되었

간접적인 소통에는 반드시 매체가 끼어들게 마련인데, 오늘날에는 이처럼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간접적인 방식이 인간의 소통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최미숙 외, 2008a : 355~6)

7)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영국의 한 초등학교 졸업반 어린이들의 자전적 동영상 제작 사례에 대해, 어린이들이 스스로 성장의 이카이브를 만들고 전시하는 ‘큐레이터 되기 (curatorship)’의 개념을 통해 탐구한 Potter(2009)의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다. 학생들의 삶에서 의미 있는 매체로서, 스스로 생산자가 되고 수용자가 되는 소통의 맥락 속에서 텍스트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인 것이다. 학급문집을 제작함으로써 학생들은 개인들의 기억이 모여 집단의 기억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매체 만들기를 자신의 생활 세계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학급문집의 내용으로 신기 위해 자기 자신에 대해,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에 대해 기억하기 위해 기록하고, 그렇게 기록된 다양한 사진과 글 가운데 일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들은 개인인 ‘나’에게 의미 있는 기억과 기록 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인 반 전체에게 의미 있는 사회적 소통을 위한 매체 제작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학급문집은 단지 학생들에게만이 아니라 교사에게도, 또 더 나아가 학부모에게도 소중한 기록으로 남을 매체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연구자와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이 일 년 간의 프로젝트를 매체 언어 교육을 위한 ‘학급문집의 재발견’ 프로젝트라는 별칭으로 부르기도 했다. 다음의 <그림 1>은 이 연구의 전체적인 설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사진과 글을 통한 표현과 소통을 위한 학급문집 만들기 프로젝트 학습의 설계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학급문집 만들기는 어린이들의

텍스트 생산을 위한 맥락으로 설정되었다. 학급문집을 인쇄매체로 만들 것인지, CD-ROM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도 연구자와 연구 참여 교사 간에 많은 논의를 하였으나, 학습자들 가운데 컴퓨터 기술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비율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⁸⁾ 인쇄매체 형태의 학급문집을 만들기로 하였다. 이 연구의 초점이 학급문집이라는 매체 제작의 기술적 과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진과 글을 통한 의미 있는 텍스트의 표현에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 기술적 난이도에 의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이다.

2. 연구 방법과 연구 대상

연구가 진행된 학교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로, 어린이들의 학력 수준은 서울을 기준으로 볼 때 보통 이상에 속한다.⁹⁾ 연

8) 연구 대상 어린이들의 미디어 이용에 관한 조사에서,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할 줄 모르는 어린이가 전체 34명 중 10명(29.4%)으로 나타난 것이 그 예이다. 자세한 논의는 연구 대상에 대한 논의에서 이어질 것이다.

9) 2008학년도 초등학교 6학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국어과 평균은 보통 이상 학력 81.8%, 기초학력 15.5%, 기초 미달 학력 2.7%인데 비해 「머니투데이」 2009년 4월 13일자 기사 “수정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이 학교의 국어과 평균은 보통 이상 학력 87.4%, 기초학력 10.3%, 기초 미달 학력 2.2%로 나타났다(해당 학교의 서울시교육청 보고 자료 참고). 보통 이상 학력은 서울시 평균에 비해 높은 데 비해, 기초학력과 기초 미달 학력은 서울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필자가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허락을 받기 위해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만났을 때, 교장 선생님은 이 학교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는 점을 참고하여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같은 해 실시된 2008학년도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습 진단 평가 결과 역시, 이 학교의 표집 학급은 전원 기초학력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학교의 서울시교육청 보고 자료 참고). 국가 수준의 시험에서는 이 학교 어린이들의 학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어린이들의 학력은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교장선생님이 어린이들의 학력에 대해 어쩌면 지나치게 높은 기대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교의 관심사인 글쓰기와 관련해 보면, 선택형 문항이나 짧은 단답식 문항으로 출제되는 국가 수준의 시험이 어린이들의 글쓰기 능력을 질적으로 진단하기에 적합한 도구가 아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구 대상 학급의 어린이들은 2학년의 한 학급 전체 34명으로, 이 중 17명이 남학생, 나머지 17명이 여학생이었다. 연구 결과의 해석에 참고하기 위해,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어린이들의 미디어 이용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할 줄 모르는 어린이가 10명(29.4%), 사진을 찍어본 경험이 없는 어린이가 8명(24%)으로 나타나, 어린이들 사이에 디지털 격차가 상당히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사진 찍기와 글쓰기에 대한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서, 사진을 찍는 것과 일기 쓰는 것을 좋아한다고 대답한 어린이는 각각 20명(59%)과 18명(53%)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사진을 찍는 것과 일기 쓰는 것을 싫어한다고 대답한 어린이는 각각 6명(18%)과 15명(44%)으로 크게 차이가 났고, 독후감 쓰기를 싫어한다고 대답한 어린이는 무려 26명(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진 찍기에 비해 글쓰기를 어려워하거나 싫어하는 어린이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일기 쓰기’나 ‘독후감 쓰기’와 같이 구체적으로 쓰기의 분야를 명시하지 않고, ‘글쓰기’ 일반을 좋아하느냐고 물은 질문에 대해서는 좋아한다는 대답이 14명(41%), 좋지도 싫지도 않다는 대답이 11명(32%), 싫어한다는 대답이 9명(26%)으로 나타나, 싫다는 대답에 비해 유보적인 대답을 한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또한, 자신이 쓴 글 중에서 정말 잘 써서 자랑하고 싶은 글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없었다고 대답한 어린이가 16명(47%)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복합적으로 해석하면, 어린이들이 글쓰기와 관련하여 보다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면, 글쓰기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

실제로 연구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쓴 글의 전반적인 수준에 대해 다른 학교에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검토 의견을 얻은 결과, 글의 길이가 짧고, 문장 간의 연관성이 부족한 경우, 과제로 제시된 내용에서 벗어난 서술을 하는 경우가 많고,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등 문법적 오류가 많이 나타나는 등, 글쓰기 능력의 수준을 높이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교교민의 결과를 두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겠으나, 기초학력 진단평가나 학업성취도 평가가 학습자와 교사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방식보다는 개별 학습자의 언어 능력을 보다 섬세하게 질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고 있는 어린이들이 보다 긍정적인 태도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연구 진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이후 보다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연구는 일련의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의 계획, 수업에 대한 참여관찰과 기록, 연구 참여 교사와의 협의, 연구에 참여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및 심층인터뷰, 그리고 연구 참여 교사와의 인터뷰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학습 활동은 초등학교의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2008년 3월~12월까지, 1학기과 2학기 나뉘어 이루어졌다. 활동의 목적에 따라 어떤 활동은 어린이들이 비형식적 학습의 방식으로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수행하도록 하였고, 어떤 활동은 국어 수업과 창의적 재량 활동을 연계한 수업에서 반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강의와 4~5명으로 구성된 모둠 활동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목적에 따라 프로젝트 학습의 전반적인 교육 활동을 계획하고, 연구 참여 교사와 협의하여 이를 수정·보완하였으며, 연구 참여 교사는 협의된 내용에 따라 수업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수업을 하거나, 어린이들이 개별적인 활동을 통해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수업이나 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안 어린이들의 모둠 활동을 보조하거나 수업과 어린이들의 활동을 관찰하며 사진과 글로 기록하였다.¹⁰⁾

다음 장에서는 본 연구를 위해 설계된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1년간 이루어진 다양한 학습활동들에 대해 학습 내용과 방법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0) 이탈리아의 레지오 에밀리아(Reggio Emilia)의 수업에 대한 기록 방식에서 영감을 얻은 하버드 대학교의 Project Zero 연구팀은 글과 사진으로 수업을 기록하고,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수업을 이끈 교사와 더불어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반성의 기초 자료로 사용한다. 이러한 ‘수업 기록 작업(pedagogic documentation)’은 교사의 수업 경험에 대해 ‘왜’ 특정한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린이들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지를 좀 더 깊게 반성적으로 사유하며 돌아보고 이해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Project Zero and Reggio Children, 2001 / 2005).

III. 학급문집 만들기 프로젝트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사진 찍기와 글쓰기 활동의 설계와 실행

1. 디지털 카메라와 친해지기 : 놀이를 통한 학습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카메라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카메라를 다루는 것은 기술 자체를 습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각의 틀을 통해 대상을 바라봄으로써 의미를 표현하는 독특한 ‘표현 도구’의 사용 방법을 익히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카메라 사용법에 대한 접근은 마치 아직 글자를 익히지 못한 어린이들이 연필을 가지고 마음대로 글자를 창안하며 놀다가 문자와 단어를 익히고 글쓰기를 배우게 되는 것이나, 워드 프로세서 사용법을 배우기 전에 컴퓨터 자판을 익히기 위해 게임을 하는 것처럼, 카메라 역시 장난감처럼 갖고 놀면서 카메라가 일상생활을 기록하고 저장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을 터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¹¹⁾

34명에 이르는 한 학급의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개별적으로 사진을 찍으며 스스로 카메라 사용법을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형식적 학습을 공식적인 수업과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이를 위해 3월 초에서 4월 중순까지 매일 하루에 한 명씩, 어린이들이 학교에 오면 교사에게서

11) ‘놀이(play)’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 중의 하나이다. 젠킨스(Jenkins)에 따르면 놀이란 문제 해결의 형식으로서, 주어진 환경에 대해 실험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Jenkins, 2006). 어린이들이 자신의 신체, 도구,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 환경, 지식 등과 관계 맺는 방식에 있어 놀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디지털 카메라 역시 어린이들에게는 자신의 신체는 물론, 주변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속한 환경과 관계 맺도록 하는 도구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해결’에 직면한 어린이들에게 디지털 카메라를 갖고 ‘노는’ 일은 카메라의 사용법을 익히는 것은 물론 카메라를 통해 자기 자신, 주변 사람들, 그리고 세상을 보는 방법을 익히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카메라를 받아 하루 종일 사진을 찍고 집에 가기 전에 카메라를 반납하도록 하였다. 어린이들에게 한 가지 당부한 것은 수업 시간은 제외하고 아침 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 그리고 집에 가기 전까지 친구들의 모습이나 교실의 구석구석을 사진으로 찍되, 되도록 많이 그리고 다양한 모습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직 어린이들이 디지털 카메라에 저장된 사진을 컴퓨터로 옮겨 저장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카메라를 반납한 이후 사진을 저장하는 일은 교사가 맡았다.

이렇게 저장된 사진들은 어린이들이 개인적으로 쓰는 일기와 모둠별로 함께 쓰는 모둠 일기에 사진 일기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방식으로, 비록 사진 수업은 1주일에 1회 진행되지만, 누군가는 사진을 찍고 또 누군가는 사진 찍는 친구를 위해 포즈를 취하기도 하며 사진을 찍는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일이 교실에서 일상화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어린이들 모두가 한 번씩 사진을 찍어본 후에는,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겪었던 즐거움과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카메라를 다룰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확인하는 활동을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2. 학급문집의 내용으로서 사진과 글의 성격 이해하기 : 제작 시 물레이션을 통한 매체 이해

매체 제작은 특정한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성격, ‘생산자(필자)－수용자(독자)’ 간의 상호작용 방식을 중재하는 매체의 성격, 특정한 매체에서 언어와 기호가 사용되는 방식 등에 대해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경우 매체 제작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매체의 특성 이해를 위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Buckingham, 2003 / 2004). 물론, 매체 제작은 매체에 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 교수학습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실제적인 매체 제작 자체를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매체 제작은 하나의 텍스트를 완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표 수용자(target audience) 혹은 독자의 범위를

고려하여 매체의 성격을 결정하고, 여러 가지 텍스트를 생산하고, 완성된 텍스트들의 내용과 관계를 고려하여 제목을 정하고 순서를 배치하는 등 텍스트에 대한 상위 인지적 사고 과정을 요구하는 ‘편집’ 과정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에게는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매체 텍스트의 표현과 제작은 학습 목표, 학습자의 수준, 학습활동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구분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정현선·이미숙·기성운, 2010, 근간 : 52~53).

본 연구에서 학급문집을 도입한 것은 제작 자체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학급문집은 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1년간 학급에서 이루어진 생활과 학습을 기록하여 추억으로 간직하기 위해 학급 전체가 하나의 책을 만드는 것이며, 여기에는 다양한 형식과 목적의 글과 사진이 담길 수 있다는 점 등을 이해하도록 하려는 목적에서였다. 따라서 다른 어린이들이 만든 학급문집을 살펴보도록 한 후, 모둠별로 만들고 싶은 문집의 제목을 정하고, 그동안 어린이들이 쓴 모듬 일기, 글, 그림들 가운데 문집에 포함하고 싶은 내용을 선택해 ‘작은 책’ 만들기를 하는 일종의 ‘시뮬레이션’ 활동으로 제작 활동을 대체하였다.

3. 사진과 글의 특성을 살려 ‘사진 일기’ 쓰기 : 어린이의 사진과 글을 활용한 이해와 적용 학습

매체 언어로서 사진과 글이 지닌 각각의 표현 특성을 이해하고, 두 가지 다른 표현 방식을 결합하여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다양한 표현 능력의 신장 측면에서도 중요한 매체 언어 학습의 내용이다. 이 연구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익숙한 그림일기 형식을 활용하여 사진 일기를 쓰도록 함으로써, 글로 표현된 내용을 사진이 보완하거나 사진으로 표현된 내용을 글이 보완하는 방식과 같이, 두 가지 표현 양식의 장점을 결합하여 표현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목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관된 활동을 통해 제시되었다. 첫째는 초등학교 어린이가 쓴 사진 일기¹²⁾

를 예시로 제시하고 사진 일기에서 사진이 하는 역할과 글이 하는 역할을 구분해 보도록 한 것이고, 두 번째 활동은 친구들의 생일잔치, 체육대회,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행사를 기록한 사진 가운데 하나를 골라 사진 일기의 형식으로 설명하는 글을 써 보도록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활동은 어린이들이 쓴 일기 중에서 사건에 대한 묘사가 생생하게 드러난 글을 골라 제시하고, 만약 이 일기에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어떤 모습을 담은 사진일지에 대해 상상하여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글은 사진으로 제시된 내용을 보다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고, 사진은 글로 나타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스스로의 활동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두 사람이 짝이 되어 서로를 사진과 글로 소개하기 : 국어 수업의 ‘소개하는 글’ 쓰기와 연계한 학습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국어교육의 일부로서 매체 언어 교육은 국어교육의 하위 영역인 ‘듣기·말하기·읽기·쓰기·문법·문학’의 학습 내용과 연계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처럼 기존 교육과정 내용과의 연계를 통해 매체 언어 학습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보할 수 있고, 국어교육이 목표로 하는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은 문자와 음성 언어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이해와 표현 능력에 머물지 않고, 변화된 매체 환경에서 요구되는 보다 광범위한 매체 언어(혹은 언어와 기호)를 통한 이해와 표현 능력의 신장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은 언어 중

-
- 12) 초등학교 3학년인 어린이가 8살 때부터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며 쓴 일기를 모아 낸 책 『카메라가 생겼어요』(류혜빈·류우중, 2007)에서 발췌한 사진 일기로, 담임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카메라를 학교에 가져가 친구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들에 덧붙여 쓴 일기이다. 같은 또래의 초등학교 어린이가 쓴 사진 일기를 예로 제시함으로써, 어린이들이 보다 쉽게 사진 일기를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업 자료로 활용하였다.

심주의를 벗어나, 언어와 언어 이외의 기호가 어우러져 의미를 생산하는 방식을 문식성 개념의 일부로 포함하며 문식성 개념을 확장하는 복합 양식 문식성(multimodal literacies)의 이론적 입장에서 나온다.¹³⁾

본 연구에서는 국어과의 ‘쓰기’ 수업에서 제시된 친구를 소개하는 글 쓰기와 연계하여 친구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는 활동을 하였다. 사진을 찍을 때에는 가장 그 친구다운 모습으로 가능한 한 좋은 모습 또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찍고, 되도록 많이 다양하게 찍어보도록 하였고, 글을 쓸 때에는 친구의 이름, 자랑거리, 장래희망, 좋아하는 것, 가족 사항 등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친구를 소개하는 글을 쓰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같은 인물에 대해 사진으로 표현된 것과 글로 표현된 것 사이의 차이 및 그 시사점과 관련하여 다음 장에서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5. 좋은 사진의 조건을 이해하고 표현 방법 익히기 : 어린이들이 찍은 다양한 사진을 활용하기

사진의 표현 방법에 대한 이해는 어렵고 복잡한 용어를 가르치는 것

-
- 13) 복합양식 문식성 이론에서는 텍스트를 종이나 인쇄물의 지면에 문자로 적힌 것뿐만 아니라, 이미지까지도 포함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광범위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텍스트는 “글로 쓰인 것이나 말해진 것, 혹은 이미지의 일부”(Lankshear et al, 2002 : 45), “책, 잡지, 신문 등과 같이 문자로 쓰인 것, 혹은 연설, 대화, 라디오 프로그램, 텔레비전 광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신문의 사진 등과 같은 담화의 뭉치”(Evans, 2004 : 10)로 정의되며, 모든 의미화 양식을 동등하게 여기는 이론적 입장을 지닌다(Kress & Jewitt, 2003), 과학 교과서에 제시되는 그림이나 사진이 하는 역할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미지는 언어를 통해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개념적 이해와 상상력을 훌륭하게 보여주는 표현 수단이며(Kress, 2000 : 193~195), 이미지도 문자와 같이 의미를 창조하고, 표현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일들 사이에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Kendrick & McKay, 2004 : 111). 어린이들의 초기 문자 학습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글과 그림이 복합된 텍스트’는 매체 발달로 인한 이미지와 문자 등 다양한 기호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의미를 나타내는 복합 양식 텍스트와 연관되어 인간의 자연스러운 의미 표현 방식으로 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현선(2005, 2009)에서 논의한 바 있다.

이 아니라, 사각의 틀 안에 대상을 담아 의미를 만들기 위해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되도록 쉬운 언어로 설명될 필요가 있다. 사진 속 인물의 얼굴이나 상반신을 중심으로 표현할 것인가, 아니면 인물이 위치한 공간이 어디인지 알 수 있도록 몸 전체가 다 보이도록 표현할 것인가(‘당겨 찍기(줌인 : zoom-in)’과 ‘멀리 찍기(줌아웃 : zoom-out)’ 기능의 사용), 인물의 정면을 제시할 것인가, 아니면 옆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혹은 위에서 내려다보거나 아래에서 올려다본 모습을 제시할 것인가(인물을 제시하는 각도의 문제, 인물의 어떤 표정과 몸짓을 제시할 것인가(인물을 ‘그 사람답게’ 혹은 그 인물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문제) 등과 같은 사진의 의미 작용을 중심으로 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다.



〈그림 2〉



〈그림 3〉



〈그림 4〉



〈그림 5〉



〈그림 6〉

본 연구에서는 좋은 사진의 조건을 이해하고 사진의 표현 방법을 익히기 위해, 어린이들이 직접 찍은 사진들을 예시 자료로 활용하였다. 위에 제시된 <그림 2>부터 <그림 6>은 ‘민지’¹⁴⁾라는 이름의 여자 어린이가

14) 본고에 제시된 어린이들의 이름은 익명성을 위해 모두 가명으로 처리되었다.

찍은 사진 가운데 일부로, 한 인물의 모습을 다양한 각도와 크기로 보여 준다. 아래에 제시된 민지의 또 다른 사진인 <그림 7>과 <그림 8>은 위에 제시된 <그림 2>~<그림 6> 속의 주인공과 다른 친구의 관계가 드러나는 사진의 예시로 제시함으로써, 카메라를 통해 사진 속 인물들 간의 관계에 대해 사진 찍는 이가 생각하고 느끼는 바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해보도록 하였다. <그림 9>는 또 다른 여자 어린이인 ‘혜미’가 찍은 사진으로, <그림 7>이나 <그림 8>과 같이 친구들 간의 관계가 표현된 사진 이면서, 사진 속 인물들이 카메라를 향해 정면으로 몸짓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사진 찍는 이와 사진 속에 담기는 이들 간의 관계가 함께 표현된 사진의 예로 제시하였다.



<그림 7>



<그림 8>



<그림 9>

본 연구에서 <그림 2>~<그림 9>에 제시된 사진들을 포함해 같은 반 어린이들이 직접 찍은 사진들을 친구들의 모습을 잘 표현한 '좋은 사진'의 예시로 제시한 이유는, 어린이들의 학습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동시에, 친구들의 사진에 나타난 표현 방법을 모방하여 스스로의 사진 표현 방법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학습 동기를 자극하려는 목적에서였다. 이와 같이 어린이들의 사진을 예시로 하여,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찍는 것보다 한 사람이나 하나의 대상을 여러 번 찍는 것이 중요하며, 한 번에 잘 찍으려고 하기보다 여러 번 찍다보면 좋은 사진이 나오게 된다는 점, 사진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모두를 담는 것이 아니라 사진 찍는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것을 사각의 틀 안에 잘라 넣어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 따라서 똑같은 인물이나 대상이라도 어떤 시선에서 바라

보느냐에 따라 다른 사진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명시적으로 설명하였다.¹⁵⁾

이와 같이 좋은 사진이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해 예시를 통해 알아본 후에는, 예시로 제시된 사진의 구도를 모방하여 따라 찍어보도록 함으로써 이해한 내용을 실제로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마치 표현이 잘 된 글을 읽은 후 그 표현 방식을 모방하여 글을 써 보도록 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10>은 사각의 틀에 대상을 담은 사진의 표현 방법을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익히도록 하기 위해, 감정 도화지로 만들어 나누어 준 ‘사진틀’을 이용해 어린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장면을 제시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교실에는 디지털 카메라가 1대밖에 비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장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진틀’을 제작하여 어린이들 모두가 각자 카메라를 사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 사진을 찍는 연습도 필요했으므로, 이때에는 가정에 디지털 카메라를 소유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학부모의 허락을 받아 카메라를 학교에 가져오게 한 후 모둠별로 1대씩을 함께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교실 내에서 친구들의 사진 구도를 모방하여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기도 하고(아래의 <그림 11>은 앞에서 제시한 <그림 2>를 따라 찍는 장면을 포착한 것이고, <그림 12>는 <그림 9>를 따라 찍는 장면을 담은 것이다.), 학교 안의 익숙한 공간인 운동장과 화장실에 모두 함께 카메라를 가지고 나가 친구의 모습을 가깝게 찍어보도록 하기도 하고(<그림 13> 참고), 친구의 모습을 멀리서 찍어보도록 하기도 하면서(<그림 14> 참고), 익숙한 공간 속의 다양한 풍경과 모습들을 사진에 담아보도록 함으로써 사진의 표현 방법을 실제로 익히도록 하였다.

15) 좋은 사진과 좋은 사진을 찍는 방법에 관한 이 내용들은 앞서 언급한 『카메라가 생겼어요』에 제시된 내용을 참고하고, 본 연구 과정에서 자문에 응한 사진 교육 전문가와 초등학교 교사의 조언을 참고하여,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들에게 수용 가능한 내용과 언어를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그림 10〉



〈그림 11〉



〈그림 12〉



〈그림 13〉



〈그림 14〉

6. 사진과 글을 통한 자기 모습의 표현과 소통 : 개인 과제 수행과 연계한 수업

매체 언어를 통한 표현도 글쓰기와 마찬가지로 형식이나 기법보다는 표현의 동기와 내용 생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학급문집 만들기라는 프로젝트의 맥락을 설정한 이유는, 1년간 함께 공부하고 생활한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 생성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데 있었고, 이를 위해 사진과 글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서 제시되었다. 사진은 직접 가 볼 수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난 일을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정치인이나 연예인과 같은 공적 존재의 자연스러운 일상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새로운 모습을 통해 친근감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진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린이들에게 집에서 자신이 즐겁게 노는 모습을 사진에 담아 오도록 함으로써, 교실에서 보이는 ‘학생’으로서의 사회적이고 공적인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자연스럽고 즐거운 일상의

모습을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가정에서의 모습을 통해 어린이들의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게 하되, 스스로 보여주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담도록 하는 데 이 활동의 초점이 있었던 것이다.

이전까지의 활동이 주로 친구를 찍어주거나 사진의 언어를 배우기 위한 연습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 활동은 어린이들이 다른 친구들이나 선생님에게 보여주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선택하여 사진에 담고, 이를 설명하는 글을 쓰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 이는 글쓰기에 있어 필자의 자기 인식과 정체성의 표현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옥현진, 2009 : 378). 이를 위해 어린이들이 하루에 한 명씩 카메라를 집으로 가져가 자신이 집에서 즐겁게 노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은 후 학교에 가져오도록 하였다. 되도록 많이 사진을 찍도록 하였고, 자신의 모습이 담겨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에게 자신의 모습을 찍게 할 수도 있게 하였다.¹⁶⁾ 사진을 찍은 후에는 ‘사진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잘 알 수 있는 사진, 사진의 주인공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사진, 사진을 보는 이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사진 속에 담겨 있는 사진’ 등을 기준으로 10장의 사진을 우선 선택하도록 하고, 이를 다시 반으로 줄이고 또 다시 반으로 줄여 최종적으로 한 장의 사진을 고른 후, 맨 마지막으로 선택한 사진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쓰도록 했다.

16) 이 활동에서는 사진을 찍어 표현하는 어린이의 능력보다는 사진 속에 담기는 자신의 모습에 초점을 두도록 하였다. 즉 어린이가 직접 사진을 찍든, 가족에서 자신의 모습을 찍어달라고 하든, 친구들과 선생님이 학급문집을 통해 기억하게 될 자기 자신의 즐거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핵심이었으며, 이를 글쓰기와 연계하도록 하였다.

IV.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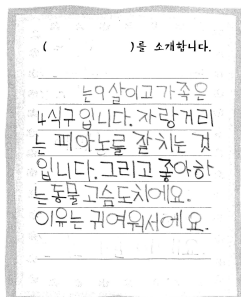
1. 글로 표현하는 능력과 사진으로 표현하는 능력 사이의 거리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던 사실 가운데 하나는, 어쩌면 상식에 속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좋은 어린이들이 반드시 사진으로도 표현을 잘 하는 어린이들은 아니며, 마찬가지로 사진을 잘 찍은 어린이들이 반드시 글을 잘 쓰는 어린이도 아니었다는 점이다. 비교적 좋은 사진을 찍은 어린이들로서 연구 과정에서 집중적인 분석 대상이 된 8명 가운데 글쓰기 능력이 좋은 편에 속하는 어린이는 1명뿐이었고(혜미), 5명이나 되는 다수의 어린이들은 글쓰기 능력이 다소 부족한 편에 속했으며(예원, 민지, 소연, 다영, 지연), 글쓰기 능력이 매우 부족한 편에 속하는 어린이도 2명이나 되었다(민식, 영운). 특히 민식이나 영운이의 경우 글쓰기 능력이 매우 부족한 데 비해, 사진 표현은 상당히 좋은 편으로, 그 둘 사이에는 큰 편차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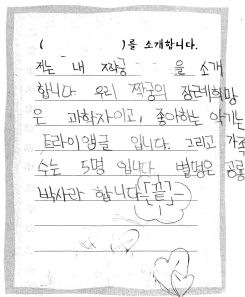
다음의 <그림 15>~<그림 17>을 통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8명의 어린이들 가운데 글쓰기 능력을 기준으로 혜미, 민지, 민식이의 글을 비교해 보면, 세 어린이의 글쓰기 능력에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¹⁷⁾ 혜미의 글은 친구에 대한 정보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독자를 고려하여 설명하는 방식으로 씌어있다. 이에 비해 민지의 글은 친구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나열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민식이의 글은 글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메모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글을 중심으로 볼 때 민식이

17) 혜미의 경우는 글쓰기 능력과 사진 표현 능력이 모두 좋은 사례이고, 민지의 경우는 글쓰기 능력은 다소 부족하나 사진을 통한 표현 능력이 좋은 편인 사례이며, 민식이의 경우는 글쓰기 능력이 매우 부족한 반면 사진을 통한 표현 능력이 매우 좋은 편인 예이다. 여기서 글쓰기 능력에 대한 판단은 글의 목적과 성격에 적합한 글을 쓰는가, 독자를 고려한 글을 쓰는가, 과제 수행을 위해 형식적으로 쓴 글이 아닌가, 글 내용에 응집성이 있는가,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는가,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정확한가, 전체적인 글의 길이가 어느 정도인가 등을 기준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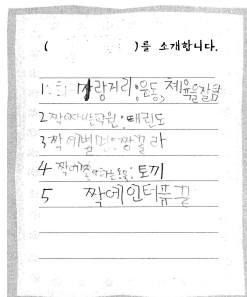
는 표현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5> 헤미의 글¹⁸⁾



<그림 16> 민지의 글¹⁹⁾



<그림 17> 민식이의 글²⁰⁾

그런데 글쓰기 능력이 헤미에 비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 민지와 민식이라도 사진을 통한 표현 능력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했다. 헤미의 경우는 글쓰기 능력과 사진 표현이 모두 좋은 편에 속하는 데 비해(앞서 제시된 <그림 9> 참고), 민지의 경우에는 앞서 제시한 <그림 2>~<그림 8>이 다른 어린이들에게 좋은 사진으로 소개되었을 정도로, 글쓰기에 비해 사진 표현이 더 좋은 편에 속했다. 그리고 민식이의 경우는 글쓰기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는 데 비해, 사진으로는 매우 다양하고 풍부한 표현을 하고 있어 주목을 끌었다. 아래의 <그림 18>~<그림 22>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비록 초점이 흔들리기는 했으나 과감한 클로즈업으로 친구의 표정을 잡아내기도 하고, 친구가 혼자 있을 때 뿐 아니라 다른 친구와 관계 맺고 있을 때의 모습을 찍은 사진, 사진 속 인물의 시선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카메라를 응시하는 모습에서부터 다른 곳을 보고 있는 모습, 뒷모습

18) 글의 내용은 “○○은 9살이고 가족은 4석구입니다. 자랑거리는 피아노를 잘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동물 고슴도치예요. 이유는 귀여워서예요.”이다.

19) 글의 내용은 “저는 내 짝궁 ○○을 소개합니다. 우리 짝궁의 장래희망은 과학자이고, 좋아하는 약기는 트라이앵글입니다. 그리고 가족 수는 5명입니다. 별명은 공룡박사라 합니다. —끝—”이다.

20) 글의 내용은 “1. 자랑거리 : 운동, 체육을 잘함. 2. 짝이 다니는 학원 : 태권도, 3 : 짝에 별명 : 짱돌라, 4. 짝이 좋아하는 동물 : 토끼, 5. 짝에 인터뷰 끝”이라고 적혀 있다 (가독성을 위해 잘못된 띄어쓰기는 수정하여 제시함).

등을 다양하고 과감히 표현하고 있다. 특히 민식이는 사진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한 번도 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는 어린이였다는 점에서 이렇게 사진 표현의 결과가 좋았다는 점이 매우 놀라게 여겨질 정도이다.²¹⁾



〈그림 18〉



〈그림 19〉



〈그림 20〉



〈그림 21〉



〈그림 21〉

그렇다면 글로는 다양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어린이에게 사진을 찍게 했을 때 이처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고려할 수 있는 점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몸을 움직이고 카메라를 기계적으로 조작해야 하는데, 이러한 특성이 가만히 의자에 앉아 있기보다는 몸을 움직이기를 좋아하고 새로 주어진 도전 과제에 대해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모험하기를 즐기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남자 어린이에게 특히 더 즐거운 활동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의학과 심리학의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남자 어린이들은 끊임 없이 움직이려는 성향이 강하고, 여자 어린이들은 한 곳에 조용히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다고 한다. 남자 어린이들에게는 부산스럽게 여기저기 기웃거리거나 허용된 것 이상으로 움직이려는 성향이 있는데, 여성이 초등 교사의 다수를 차지하는 오늘날 현실에서 되도록 학생들이 압전히 교실 의자에 앉아 있기를 바라는 대다수의 여성 교사들에 의해

21) 본 연구에서 특히 민식이의 사례는 ‘표현 도구’로서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이 글쓰기의 표현 동기와 내용 생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한 <그림 18>~<그림 22>에 관한 상세한 분석은 한국어문학회 학술대회(2009. 10. 17)에서 발표한 별도의 논문(『어문학』 106집 수록 예정)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언급하고자 한다.

남자 어린이들은 학습의 측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Birkenbihl, 2005 / 2006 : 48~49).

이런 시각에서 볼 때, 몸을 움직여 누군가의 사진 속 모델이 되기 위해 포즈를 취하거나 누군가를 사진에 담기 위해 몸을 움직여야 하는 사진 찍기 활동은, 적어도 민식이와 남자 어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만히 교실 의자에 앉아있지 못하는 남자 어린이들의 학습 스타일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했을 수도 있다.²²⁾ 이와 더불어 남자 어린이와 여자 어린이는 두뇌 구조에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는 연구 결과들도 제시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공간작업을 할 때 남자 어린이는 나침반 방향 지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반면에 여자 어린이는 눈에 보이는 표지물에 대해 언어로 지시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Sax, 2005/2007 : 138~140). 이러한 견해를 고려할 때, 어쩌면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험 성향이 강한 남자 어린이들이 교사의 언어적 지시에 덜 의존하고 스스로 카메라를 조작해보며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허용되었던 것이, 글쓰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일부 남자 어린이들이 오히려 사진으로는 잘 표현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 것이 아닌가 짐작해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남녀 어린이에 대한 선입견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실제로 좋은 사진을 찍은 어린이들 가운데에는 여자 어린이들이 더 많았으며, 대부분의 여자 어린이들도 매우 적극적으로 사진 활동에 몰입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이 지닌 매체의 특성 자체가 사진을 찍기 위해 몸을 움직일 것을 자연스럽게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글쓰기와는 사뭇 다른 표현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22) 흥미로운 것은 사진 수업을 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사진을 찍으러 나갈 때 일부 친구들이 떠들거나 장난을 쳐 사진기를 떨어뜨릴까봐 걱정이 되었다거나, 일종의 벌을 받게 되어 운동장에 나가서 찍지 못하고 교실에 남아 찍어야 했던 일을 언급한 어린이들이 있었는데, 이들 모두가 여자 어린이들이었다는 점이다.“힘들어요 애들이 막 달려요.”[예원], “애들이 떨어뜨리고 하면 그 다음에 못 하니까.”[정연], “사진 찍으러 나가려고 했는데 시끄럽게 굴어서 교실에서 찍었어요.”[지연]. 이러한 여자 어린이들의 반응은 남자 어린이들 가운데에는 사진을 찍기 위해 교실에서 몸을 움직여 돌아다니거나 운동장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잠시 생길 수 있는 소란에 대해 어려웠던 일로 언급한 경우가 없었던 것과 비교할 때 분명히 대조적이다.

한 듯하다. 수업 장면을 담은 연구자의 사진인 <그림 10>~<그림 1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어린이들은 친구들이 사진을 찍는 동안 모델이 되어 포즈를 취해주기도 하고, 자신이 사진을 찍을 때에는 사진사처럼 멋지게 포즈를 취하기도 하면서 서로 자연스럽게 말을 주고받고 느낌을 공유할 수 있었다. 이처럼 글쓰기와는 사뭇 다른 사진의 표현 방식을 글쓰기와 함께 병행하여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일부 어린이들의 경우, 글쓰기를 통해서만 잘 드러나지 않았던 표현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다.

이처럼 표현 도구의 차이에 따라 어린이들의 표현 능력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 즉 글과 사진 모두에서 표현이 좋은 경우도 있었지만, 글쓰기 능력에 비해 사진 능력은 훨씬 좋은 경우도 있었고, 글쓰기 능력에 비해 사진 표현이 덜 좋은 경우도 있었다는 점은 표현 능력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 ‘언어중심주의’를 벗어날 필요성이 있음을 말해준다. 비록 국어교육의 관점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아마도 문자로 표현하는 능력일 것이지만, 어린이들이 사진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표현 능력이 글쓰기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고려하는 것은 국어교육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2. 글쓰기 동기와 내용 생성에 미치는 사진 찍기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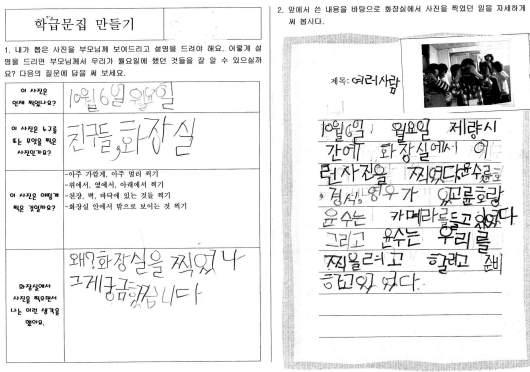
다양한 매체 활용은 초등학생들의 글쓰기 동기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이재승 외, 2006 ; 박영민, 2008), 따라서 글쓰기는 종이와 연필로 하는 것이라는 전통적인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이재승, 2007 : 341). 영화나 텔레비전과 같은 매체와 관련지어 글쓰기 활동을 하게 하거나, 글을 쓸 때 기능하면 워드 프로세서를 활용하게 하는 등, 매체를 글쓰기의 제재와 관련짓거나 글쓰기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글쓰기에 대한 매체 사용의 긍정적인 영향은 어린이들에게 학급문집에 포함될 사진을 찍고 자신이 찍

은 사진에 대해 글을 쓰게 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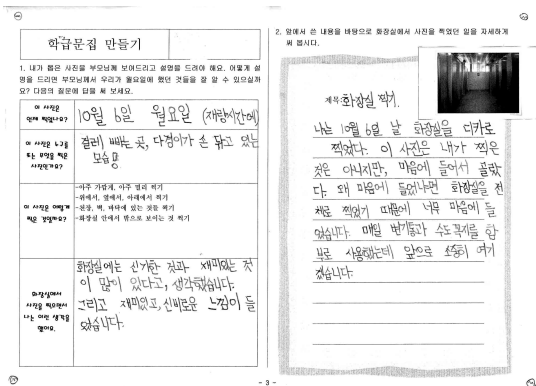
예를 들어, 연구 대상 어린이들 가운데 사진 표현은 좋은 편에 속하지만 글쓰기 능력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여겨지는 민식이는 학기말에 이루어진 심층인터뷰에서, 일반적으로 글을 쓸 때에는 쓸 말이 없다며 글쓰기에 대한 부담을 토로한 반면(“쓸거리가 없어요 저는.”), 사진을 찍고 나면 글을 쓸 때 할 말이 더 많아진다고 했다. 이 인터뷰가 1년간의 연구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고려하면, 사진을 찍는 행위 자체가 글쓰기 자체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어놓거나 글쓰기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글쓰기 동기와 내용 생성에 대한 사진 찍기의 영향은, 어린이들이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혹은 자신이 찍은 사진의 결과를 사후에 보는 과정에서 사각의 틀에 담긴 인물이나 대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과 같은 맥락적 정보에 대해 나누고 싶은 말이 생기는 등의 방식으로 표현 욕구나 동기를 자극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²³⁾

아래의 <그림 23>에 제시된 민식이의 글과 <그림 24>에 제시된 민지의 글은 학교에서 익숙한 공간인 화장실을 자세히 살펴보고 사진의 표현 방법을 익히도록 한 활동의 결과물로, 각 그림의 오른쪽에는 사진에 대해 설명한 글이 제시되어 있고, 왼쪽에는 글을 쓰기 위해 활용한 학습지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그림 23>의 왼쪽 맨 아래에 적혀 있는 “왜? 화장실을 찍었나, 그게 궁금했습니다.”라는 표현이나, <그림 24>의 왼쪽 아래에 적힌 “화장실에는 신기한 것과 재미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고, 신비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라는 내용은 이러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23) 이와 관련하여, 사진 활용 교육(PIE : Picture In Education)의 내용과 방법을 소개한 정경련(2009 : 23)에서도, 서울덕수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들과 수행한 사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통해, 어린이들은 사진을 찍기 전에, 그리고 사진을 찍는 동안 하고 싶은 말이 생기기 때문에 글쓰기를 쉽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3〉 사진에 대해 설명하는 글쓰기(민식)



〈그림 24〉 사진에 대해 설명하는 글쓰기(민지)

매체 요인이 글쓰기 동기에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기여하는가에 대한 설명은 보다 세밀한 분석을 필요로 하는데, 사진 찍기의 경우는 누군가에 게 보여주고 싶은 인물이나 대상, 혹은 공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나누기 위해 글을 쓰고 싶은 동기를 자극하고 글쓰기의 내용을 생성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⁴⁾ 앞서 인용

24) 이와 관련하여, 정혜승(2009 : 417)에서는 초등학교 2, 4, 6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독자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초고로 ‘유치원에 다니는 동생’과 같이 구체적인 독자를 제시한 후에 고쳐쓰기 하도록 했을 때 초등학교생들의 독자 고려

한 버거(Berger)와 모르(Mohr)가 말한 바와 같이, 사진은 어떤 대상이나 인물, 장소 등을 “직접 인용”함으로써 사진 속 대상에 대한 기억을 환기함으로써 인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²⁵⁾ 이 점에서 볼 때 사진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나 경험한 것을 환기시키고 그것에 대해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소통 욕망을 자극함으로써 글쓰기의 표현 동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든 사진으로 찍기만 하면 글쓰기 동기를 자극할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사진에 담는 주제에 따른 소통의 목적에 따라 글쓰기의 동기가 부여될 수 있는 것일까? 다음의 질문은 바로 이 점에 대한 것이다.

3. 사진과 글에 담기는 내용과 소통 목적의 중요성—사진과 학급 문집의 성격

사진을 찍음으로써 어떤 인물이나 대상에 대해 표현하는 활동이 글쓰기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사진의 표현 방법을 배우거나 카메라를 다루는 기술을 배우는 것 자체보다는, 사진에 표현되는 내용이나 주제가 사진을 찍는 이에게나 그것을 보는 이에게 의미 있는 소통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정도가 높아지고 다양해진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이 역시 구체적인 소통의 주제와 맥락이 주어졌을 때 의미 있는 글쓰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친구들과 자신이 볼 학급문집에 수록될 사진과 글을 생산하는 것이 글쓰기 동기에 기여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 25) 이와 관련하여 연구에 참여한 교사의 인터뷰에서 발췌한 다음의 대화는 사진이 환기하는 일상생활의 구체성이 글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은 가장 자신의 밀접한 생활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수업 시간에 자료로 쓰기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사진이 있으면 수업에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생활문 같은 경우도 그냥 뜬금없이 쓰는 생활문이 아니라, 뭐 여행을 갔다와서 쓴다거나, 그런 것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데 형식처럼 그런 식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자기 주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글쓰기를 시작하면 (…). 그런 식의 정말 생활에서 우리나라오는 글이 애들한테 더 와 닿는 글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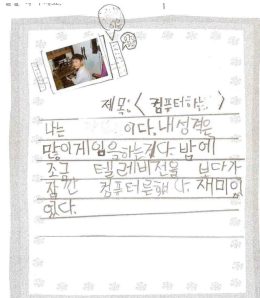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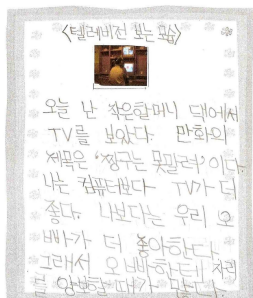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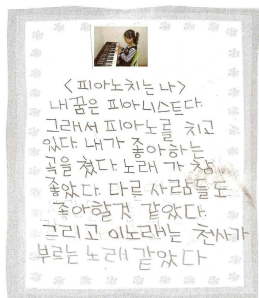
흥미로운 사실은 어린이들에게 1년간 사진을 찍고 글을 쓰는 활동 가운데 가장 재미있었던 활동이 무엇이었느냐고 질문했을 때, 교사가 자신의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그 강아지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직접 작성해 예시로 보여준 것²⁶⁾(민식, 예원, 정연)을 든 경우가 가장 많았다는 점이다. 그밖에 어린이들이 즐거워했던 활동은, 모둠으로 사진 일기를 쓰고 서로 댓글을 써준 것(민식), 학급문집에 나올 것을 기대하며 사진을 찍고 글을 쓴 것(정연), 현장학습에 대한 추억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유진),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던 것(기영), 자신의 모습을 찍었던 것(태진)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린이들의 대답은 사진과 글을 통한 표현과 소통에 있어 중요한 것이, 다름 아닌 사진과 글에 담기는 내용과 소통의 목적임을 말해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사진을 통해 기억하거나, 자신을 포함한 여러 친구들이나 선생님의 다양한 모습을 사진을 통해 볼 수 있었던 것, 이러한 사진들이 학급문집에 포함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기대감 등이 사진을 찍고 이에 대한 글을 쓰는 데 있어 중요한 동기로 작용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 수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진을 찍는 목적이 학급 구성원들의 모습과 학교에서

26) 집에서 노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이를 설명하는 글을 쓰도록 하기 위해, 교사는 스스로 집에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에 대해 글을 써 어린이들에게 예시로 제시하였다. 이는 글의 내용을 ‘제목’, ‘사진’, ‘주인공 소개’, ‘있었던 일’, ‘느낌이나 생각’으로 구조화하여 쓰도록 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학교에서 보이는 모습 이외의 다른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으로 사진과 글을 표현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지니고 있었다. 어린이들 역시, 이 사진과 글의 내용에서 교사의 비공식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점을 즐거워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사진은 교사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무릎 위에 잠들어 있는 모습을 제시하였고, 글의 제목은 “내 무릎 위에서 잠자는 어쭈군”이며,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집에는 강아지가 두 마리 있다. 한 마리는 암컷인 세나이이고 한 마리는 수컷인 어쭈이다. 세나는 잠도 많이 자는 순둥이이고 어쭈는 화도 잘 내고 성격이 까다로운 녀석이다. 저녁을 먹고 컴퓨터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강아지 어쭈가 자꾸 무릎 위에 올라달라고 쩌얼댔다. 평소에는 옆에 가는 거 귀찮아하는 녀석인데 오늘따라 애교를 부렸다. 하느 수 없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조금 있다 보니 이런 모습으로 자고 있다. 자는 녀석을 깨우지 않고 조심스레 사진을 찍는 게 좀 힘들었다. 사진을 찍으면서 어쭈가 평소와는 달리 자는 모습이 천사 같다는 생각을 했다.”

일어난 일에 대한 추억을 사진과 글에 담아 학급문집의 내용으로 포함하기 위한 것임을 수시로 학생들에게 강조했던 것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어린이들의 대답은 이 연구 프로젝트의 학습 목표와 교수 학습 활동이 어린이들에게 의미 있게 받아들여졌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소통의 목적이 분명할 때 사진을 찍고 글을 쓰는 표현 행위가 의미 있고 즐겁게 여겨질 수 있음을 어린이들 스스로 확인해 준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들에게 같은 학급의 어린이들이 직접 찍은 사진 가운데 좋은 사진들을 예시로 제시하고 그 구도를 따라 찍어봄으로써 사진의 표현 방법을 익히는 활동을 했을 때,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모방했던 사진은 앞서 제시한 사진들 가운데 민지의 사진 <그림 2>와 <그림 8>, 혜미의 사진 <그림 9>, 민식이의 사진 <그림 20> 등이었다. 이 사진들은 친구의 얼굴을 자세히 보여주는 클로즈업(close-up)으로 포착한 것, 혹은 친구가 공부나 책 읽기 등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 다른 친구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거나 도와주는 모습, 친구들끼리 우정을 과시하듯 다정하게 카메라를 보며 가까이 붙어 서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등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사진 속 인물 혹은 인물들 간의 관계에 주목하도록 하는 것들이다. 한편, 어린이들에게 학교가 아닌 집에서 노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찍고 이 가운데 하나를 골라 설명하는 글쓰기를 하도록 했을 때, 사진을 고른 기준으로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점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모습이 사진에 잘 나왔는가, 그리고 사진에 대해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사진인가였다. 그리고 아래의 <그림 25>~<그림 27>에 제시된 혜미, 민지, 민식이의 사진과 글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대부분 어린이들은 자신이 즐기는 취미 생활이나 가족과의 관계 등을 보여주는 사진과 이를 설명한 글을 썼다.



[그림 25] 헤미의 사진과 글²⁷⁾ [그림 26] 민지의 사진과 글²⁸⁾ [그림 27] 민식의 사진과 글²⁹⁾

사진과 글에 담길 내용이 곧 학급 공동체의 구성원인 서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이처럼 사진을 통해 서로에서 눈길을 건네기도 하고, 자신의 좋은 모습이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사진을 찍고 글을 썼던 것으로 보인다. 1년간의 추억을 간직할 대체인 학급문집의 내용에 포함될 사진을 만들고 고르는, 소통의 목적을 위한 활동의 맥락을 어린이들이 스스로도 중요하게 여긴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사진이 갖는 대상 표현의 구체성은 이러한 소통의 목적을 어린이들이 중요하게 여길 때 글쓰기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 27) 글의 제목은 “피아노 치는 나”이며, 내용은 “내 꿈은 피아니스트다. 그래서 피아노를 치고 있다. 내가 좋아하는 곡을 쳤다. 노래가 참 좋았다. 다른 사람들도 좋아할 것 같았다. 그리고 이 노래는 천사가 부르는 노래 같았다.”라고 되어 있다.
- 28) 글의 제목은 “텔레비전 보는 모습”이며, 내용은 “오늘 난 작은할머니 댁에서 TV를 보았다. 만화의 제목은 ‘짱구는 못 말려’이다. 나는 컴퓨터보다 TV가 더 좋다. 나보다는 우리 오빠가 더 좋아한다. 그래서 오빠한테 자리를 양보할 때가 많다.”라고 되어 있다.
- 29) 글의 제목은 “컴퓨터 하는 민식”이며, 내용은 “나는 민식이다. 내 성격은 많이 게임을 하는 거다. 밤에 조금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깐 컴퓨터를 했다. 재미있었다.”라고 되어 있다. [어린이의 이름은 가명으로 변경하여 제시함]

V. 요약 및 결론

본고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자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매체 언어 학습의 내용과 방법을 계획하고 실행한 결과에 대한 논의를 통해, 매체 언어 학습이 어린이들의 표현과 소통 능력을 기르고 심화하는 데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의미 있는 표현 수단으로서 사진과 글쓰기를 배우고 실천하며, 자신들이 생산한 사진과 글을 담아 보존하고 간직할 학급문집을 만드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소통을 위한 매체 개념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학습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교육 현장에 이미 존재하는 교육 매체인 학급 문집을 매체 언어 학습을 위해 활용하고, 학교 현장에서 가능한 매체 활용 상황을 고려하여 학습 활동을 디자인하는 한편, 학습 목표에 따라 수업을 통한 형식 교육과 개별 학습자 스스로 활동하는 비형식 교육의 방법을 병행하여 학습활동을 배치하고, 국어 수업과 창의적 재량활동을 연계하는 등의 유연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는 한 명의 학급 경영을 담당하는 담임이자 여러 교과를 넘나들며 통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초등교육의 맥락에서 가능한 것이기도 하지만, 국어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언어활동이 실제 생활의 표현과 소통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이처럼 형식 교육과 비형식 교육, 국어 수업과 국어 이외의 수업, 학교에서의 학습과 가정에서의 활동 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놀이를 통한 디지털 카메라 사용법의 학습, 제작 시뮬레이션을 통한 학급문집(매체)의 성격 이해, 사진 일기 쓰기를 통한 사진과 글의 특성 이해, 국어 수업에 제시된 ‘친구를 소개하는 글쓰기’와 연계한 사진 찍기 활동, 어린이들이 찍은 사진을 수업의 예시로 활용하여 사진의 표현 방법을 이해하고 익히는 활동, 그리고 가정에서 수행하도록 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사진 찍기 과제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글쓰기 활동 등 다양한 목표와 교수학습 방

법을 매체 언어 학습에 적용하였다.

본고의 연구 결과는 표현 도구의 차이에 따라 어린이들의 표현 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점, 그리고 사진을 찍고 글을 쓰는 것이 글쓰기의 동기와 내용 생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이처럼 매체를 통한 표현이 글쓰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사진과 글에 담기는 내용과 소통 목적의 설정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학급문집과 같이 어린이들에게 실질적인 소통의 맥락을 제공할 수 있는 매체의 설정이 유용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요약된다. 만약 우리가 언어중심주의를 벗어나 사진과 같은 매체를 통한 표현까지도 표현 능력의 넓은 범주에 포함시켜 표현 교육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리고 사진과 글이 서로를 보완하며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글로만 표현하는 것에 못지않게 누군가의 기억과 경험을 일깨우며 이야기하도록 하는 소통의 방식으로 중요한 것이라 여긴다면, 그래서 매체 텍스트 혹은 복합 양식 텍스트의 생산을 통한 표현까지도 정당한 소통의 학습이자 국어교육의 일부라고 여길 수 있다면, 앞으로의 표현 교육은 지금보다 더 풍부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본 논문은 2009. 10. 28. 투고되었으며, 2009. 11. 11. 심사가 시작되어 2009. 11. 29.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고영화(2007), 시조 교육의 위계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순희(2009), “초등학생 글쓰기에 나타난 언어 발달 양상”, 『한국초등국어교육』 제39집, 5-47,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류혜빈·류우중(2007), 『카메라가 생겼어요: 혜빈이가 찍고 사진기자 아빠가 쓴 사진 일기』, 디자인하우스.
- 박영민(2008), “쓰기 동기와 쓰기 교육”, 노명완·박영목 외, 『문식성 교육 연구』, 한국문화사.
- 옥현진(2008), “다중 문식성 교육”, 노명완·박영목 외, 『문식성 교육 연구』, 한국문화사.
- 옥현진(2009), “정체성과 문식성”, 『국어교육학연구』 제35집, 361-386, 국어교육학회.
- 우리교육 엮음(2002), 『학급 문집 만들기: 초등』, 우리교육.
- 윤석만(2007),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 윤여탁 외(2008), 『매체 언어와 국어교육』,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재승 외(2006), “초등학생용 쓰기 동기 검사 도구 개발과 활용 방안”, 『청람어문교육』 제34집, 청람어문학회.
- 이재승(2007), “글쓰기 동기의 영향 요인과 지도 방향”, 『한국초등국어교육』 제34집, 325-246,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이종원 외(2007), 「2007년 TV 시청행태 연구」, 방송위원회.
- 정경렬(2009), 『감성과 논리력을 키워주는 사진교육 PIE』, 웅진리빙하우스.
- 정현선(2005), 「‘언어, 텍스트, 매체, 문화’ 범주와 ‘복합 문식성’ 개념을 통한 미디어 교육의 국어교육적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제28집, 307-337,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정현선(2007), “기호와 소통으로서의 언어관에 따른 매체언어교육의 목표에 관한 고찰”, 『국어교육연구』 제19집, 97-138,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정현선(2009), “디지털 시대 글쓰기에 있어 ‘표현 도구’와 ‘매체 특성’ 이해의 필요성: 초등학교 어린이의 사진과 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회 2009년 학술대회 자료집』(2009. 10. 17) 『어문학』 제106집 수록 예정)
- 정현선·이미숙·기성운(2010, 근간), 『영상 이미지, 어떻게 가르칠까: 초등 교사를 위한 영상 언어교육 길라잡이』, 학지사.
- 정혜승(2009), “초등학생 필자의 독자 고려 정도와 방식”, 『국어교육학연구』 제34집, 397-427, 국어교육학회.
-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유치원 편(2008), 『활동중심통합교육과정 교육활동자료집 1: 사진』, 공동체.

- 진동선(2008), 『한 장의 사진 미학』, 예담.
- 최미숙 외(2008a), 『국어교육의 이해 : 국어교육의 미래를 모색하는 열여섯 가지 이야기』, 사회평론사.
- 최미숙 · 정현선 · 주세형 · 이미숙(2008b), 「‘매체 언어’ 교육 내용의 교재 개발 방향 및 학습활동 구성 방식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 2007년도 교과교육공동연구 결과보고서(과제번호 : KRF-2007-721-B00048).
- 한국인터넷진흥원(2007), 「UCC 이용 실태 조사」.
- Arnheim, R.(1997). ‘The Two Sources of Cognition’, in T. Sebeok and J. Umiker-Sebeok (eds.) *The Semiotic Web*, 253-9. Berlin : de Gruyter.
- Berger, J. and Mohr, J. / 이희재 옮김(2004 / 2007), 『말하기의 다른 방법』, 눈빛.
- Brown, A. L.(1992), Design Experiments :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Challenges in Creating Complex Interventions in Classroom Settings, *The Journal of Learning Sciences*, 2 : 141-178.
- Buckingham, D. / 기선정 · 김아미 옮김(2003 / 2004), 『미디어 교육 : 학습, 리터러시, 그리고 현대문화』, JNBook.
- Cobb, P., Confrey, J., diSessa, A., Lehrer, R. & Schauble, L.(2003), Design Experiments in Educational Research., *Educational Researcher*, vol.32. no.1, pp.9-13.
- Collins, A.(1992), Toward a Design Science of Education. in E. Scanlon & T.O'Shea (eds.) *New Directions in Educational Technology*, 15-22, Berlin : Springer.
- Cook, T. and Hess, E.(2007), What the Camera Sees and from Whose Perspective ; Fun Methodologies for Engaging Children in Enlightening Adults, *Childhood* 14(1) : 29-45.
- Design-Based Research Collective, the(2003), Design-Based Research : An Emerging Paradigm for Educational Inquiry, *Educational Researcher*, vol.32. no.1, pp.5-8.
- Evans, J.(ed.)(2004), *Literacy Moves On : Using Popular Culture, New Technologies and Critical Literacy in the Primary Classroom*, London : David Fulton Publishers.
- Horn, L. V.(2007), *Reading Photographs to Write with Meaning and Purpose : Grades 4-12*, Newark, D.E. :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 Jenkins, H. et al(2006), *Confronting the Challenges of Participatory Culture : Media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 MacArthur.
- Kendrick, M. & McKay, R.(2004), Drawings as an alternative way of understanding young children's constructions of literacy, *Journal of Early Childhood Literacy*, 4(1) :

109-128.

- Kress, G. and Jewitt, C.(2003), Introduction. in C. Jewitt and G. Kress (eds.), *Multimodal Literacy*, pp.1-18, New York : Peter Lang.
- Kress, G.(2000), Multimodality, in B. Cope and M. Kalantzis (eds.) *Multiliteracies : Literacy Learning and the Design of Social Futures*, 182-202, London : Routledge.
- Lankshear, C., Gee, J., Knobel, M. & Searle, C.(2002), *Changing Literacies*, Buckingham : Open University Press.
- Luke, A. and Elkins, J.(1998), Reinventing Literacy in “New Times”, *Journal of Adolescent and Literacy* 42(1) : 4-8.
- Martinec, R. & Salway, A.(2005), A System for Image-Text Relations in New (and Old) Media, *Visual Communication* 4(3) : 337-371.
- Newkirk, T.(2000), Misreading Masculinity : Speculations on the Great Gender Gap in Writing, *Language Arts* 77 : 294-300.
- Potter, J.(2009), Curating the Self : Media Literacy and Identity in Digital Video Production by Young Learners, London Knowledge Lab, Institute of Education University of London(unpublished PhD thesis).
- Project Zero and Reggio Children / 오문자, 박병희, 박선희 공역(2001 / 2005), 『기록 작업을 통한 학습의 가시화 : 개인과 집단 학습자로서의 어린이』, 양서원.
- Selman, R. L.(2003), *The Promotion of Social Awareness : Powerful Lessons from the Partnership of Development Theory and Classroom Practice*, London : Russell Sage Foundation.
- Shoenfeld, A. H.(2006), Design Experiments, in Green, J., Camilli, G. & Elmore, P.B.(eds.) *Handbook of Complementary Methods in Educational Research*, 193-205, Washington, D.C, Marwah, N.J & London :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and Lawrence Erlbaum.

<초록>

학급문집 만들기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사진과 글을 통한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의 표현과 소통

정현선

이 논문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1년간 수행된 초등학교 저학년(2학년) 어린이들의 매체 언어 학습의 결과를 다루고 있다. 일반 가정의 디지털 카메라 보유율이 65%를 넘어섰고 학령기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이 거의 100%에 이르는 현대 한국 사회의 미디어 환경에서, 사진은 글 다음으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표현 양식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학습자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다양한 표현 양식의 학습과 소통을 위한 매체 사용에 대한 학습에 대한 관점에서 출발하였으며, 이를 위해 사진과 글을 통해 학급문집에 포함될 내용을 생산하도록 하는 프로젝트 학습을 디자인하여 그 과정과 결과를 연구하였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디자인 연구’ 방법에 따라 계획되고 실행된 일련의 학습활동의 목표와 방법에 관해 논의하고, 학습자들의 결과물인 사진과 글을 학습자 및 연구 참여 교사의 인터뷰 및 학습의 기록을 위해 연구자가 찍은 수업 장면 사진과 더불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글쓰기에 대한 동기가 약하고 글쓰기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이라 하더라도, 한 해를 기억하기 위해 스스로가 필자와 독자가 되는 학급문집이라는 특별한 매체의 내용을 생산하는 과정을 통해 글쓰기의 동기가 부여되고 이를 바탕으로 쓰기 능력이 일부 향상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연구 결과는 어린이들이 카메라를 사용하여 친구들의 표정과 몸짓을 포착하고, 학교에서 즐긴 특별한 순간들을 기억하며, 친구와 교사에게 보여주고 싶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바탕으로 한 내용 생성의 측면에서 글쓰기의 동기 부여가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처럼 사진을 포함한 어린이들의 글은 사진 자체가 글의 중요한 일부가 되는 복합양식 텍스트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이 연구 결과는 사진과 글이 서로를 보완하며 의미를 표현하는 복합 양식 텍스트 생산 교육이 표현 능력의 교육을 위해 국어교육에서 중요한 위

치를 차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핵심어】 학급문집, 소통, 표현, 디자인 실험, 초등교육, 미디어 교육, 매체 언어 교육, 매체 문식성, 복합 양식 문식성, 사진, 글쓰기, 학습의 기록

<Abstract>

Lower-Elementary Children's Learning to Take Photographs and Write Texts in the Context of Making a Class Yearbook

Jeong, Hyeon-seon

This article discusses some of the findings from a year-long study of lower-elementary (2nd grade) children's media and multimodal literacy learning undertaken in an elementary school in Seoul. In the contemporary media environment, where more than 65% of households own digital cameras and almost 100%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over the age of 6 use the Internet, photographs are reported to be the second most frequently used form of expression next to texts. Considering the long-term progression in children's understanding of different modes of expression such as photographs and writing and the role of media for communication, this study explores how young people might be able to learn how to take photographs and write texts in the context of producing contents for a 'class yearbook' that can be seen as a 'medium' for the classroom community to remember the people and what they did during the specific year. The discussion includes the pedagogic intentions of the 'design' of a series of learning activities that are developed in this 'design experiment' research method, as well as the results including the children's photographs and writing as the learning outcomes, the interviews with the children and the teacher participated, and the photographs of classroom activities taken by the researcher for pedagogic documentation. The study shows children with low interests and skills in writing seem to be motivated to write texts and to improve their writing skills, when they are encouraged to produce contents for a specific

medium of 'class yearbook', which is to be written and kept by themselves for the memory of the school year. Children seem to be able to create the ideas and feeling more genuinely and easily when they are allowed to use the cameras to capture the particular facial expressions or gestures of their friends ; remember special events that they enjoyed at school ; and the moments of their choice that they want to show about themselves. The photographs taken as such seem to become important integral parts of the children's writings that can be seen as a multimodal text.

[Key words] class yearbook, communication, design experiment, elementary education, expression, media education, media literacy, multimodal literacy, pedagogic documentation, photography, writing